

남의 집 문 앞에 떡하니 상습 주차..."모레 뺄게요" 차주 '황당' 답변

변덕호 기자입력 : 2022.07.27 14:29:53 수정 : 2022.07.27 15:41:22댓글 32

자기 집 문 바로 앞에 큰 차량이 상습적으로 주차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.

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'문 앞 주차 어쩔 수 없다는 거 알지만...방법이 있을까요?'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.

제보자 A씨는 게시물을 올려 자기 집 문 앞에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차주에 불만을 토로했다.

A씨는 "주택가라 길가에 주차하는 거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어느 정도 이해한다"라면서도 "다른 차주분들은 오전·오후에 잠깐 주차했다가 불일 보고 빼시니까 괜찮다고 치는데 이 차는 하루 종일 주차하고 타지역에 불일을 보러 가서 그다음 날 저녁이나 모레 오후에 차를 빼는 정도"라며 불편을 호소했다.

그는 "저희 할머니님이 문 앞을 가리니까 주거하는 사람들 출입이 어렵고 저희 차도 가끔 주차를 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했다"며 "작은 차도 아니고 저렇게 큰 차로 문 앞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죄송하다고 하더니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 불일을 보러 가서 다음 날이나 온다고 하고 끝었다더라"고 설명했다.

그러면서 "그 뒤로 계속 주차를 저렇게 하기에 할머니님이 또 전화하셨지만, 이제는 대꾸도 안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다더라"라고 덧붙였다.

A씨는 "저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보이는 공간에 잠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"며 "근데 양심상 남의 집 문 앞에는 조심스러워서 주차할 엄두도 안 낸다"고 했다.

이어 "법은 아니지만, 상도덕 아닌가. 왜 저희 집 건물 사람들이 건물을 출입하려면 저 차를 뺄 돌아서 가야 하는가"라며 "**혹시라도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효과가 있을까?** 다른 의견도 궁금해 여쭙는다"고 하소연했다.

이를 본 접한 누리꾼들은 "차주가 양심도, 생각도 없다. **이기주의적이다**", "**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**", "**상식이 안 통한다**" 등의 반응을 보였다.

[변덕호 매경닷컴 기자]